

삼성, 구독 서비스 보장·혜택 확대 “갤럭시 Z 시리즈, 걱정 말고 쓰세요”

‘New 갤럭시 AI 구독클럽’ 운영
기기 반납시 최대 50% 잔존가 보장
폴더블 스마트폰 3년형 상품 추가

삼성전자가 갤럭시 Z 시리즈 사전판매에 맞춰 구독 서비스를 한층 업그레이드했다. 3년형 상품을 새롭게 추가하고 보장 범위와 부가 혜택을 확대해 고객 선택지를 넓힌다는 방침이다.

삼성전자가 새로운 갤럭시 Z 시리즈 ‘갤럭시 Z 폴드8 울트라·폴드8·플립8’ 사전 판매를 앞두고 혜택이 강화된 ‘New 갤럭시 AI 구독클럽’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New 갤럭시 AI 구독클럽’은 가입 후 사용하던 기기 반납 시 최대 50% 잔존가를 보장해 주고, ‘삼성케어플러스’와 액세서리 패키지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먼저, ‘갤럭시 Z 플립8’ 자급제 제품을 구매하고 ‘New 갤럭시 AI 구독클럽’ 2년형에 가입한 고객들에게 ‘플립 유스 구독’ 혜택을 제공한다.

‘플립 유스 구독’은 1020세대 젊은 고객들이 선호하는 ‘갤럭시 Z 플립8’을 2년 사용 후 기기를 반납하는 고객에게 기준가의 최대 50% 잔존가를 보장해 준다.

또한 구독 고객에게 어학 학습 앱 ‘스픽’ 프리미엄 플러스 1개월 이용권 혜택



삼성전자 모델들이 ‘갤럭시 Z 폴드8 울트라·폴드8·플립8’ 사전 판매를 앞두고 혜택을 강화한 ‘New 갤럭시 AI 구독클럽’을 소개하는 모습. /삼성전자

을 제공한다.

삼성전자는 ‘New 갤럭시 AI 구독클럽’ 폴더블 스마트폰 가입 유형에 기존 1년형, 2년형에 더해 ‘3년형’을 새롭게 추가했다.

3년형 가입 고객에게는 파손 보장에 더해 분실 보장까지 가능한 ‘삼성케어플러스’ 스마트폰 분실·파손’ 상품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가입 기간 동안 ▲무상 수리 서비스 ▲배터리 교체 서비스 ▲방문 수리 서비스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1년형과 2년형은 파손 보장 중심의 ‘삼성케어플러스’ 스마트폰 파손’ 상품을 제공한다.

새로운 8세대 폴더블 자급제 모델을 구매하고, 구독클럽에 가입한 고객은 사용 후 기기 반납 시 1년형은 삼성닷컴 기준

가의 50%, 2년형은 기준가의 40%(갤럭시 Z 플립8은 50%), 3년형은 기준가의 25% 잔존가를 보장받을 수 있다.

월 구독료는 ‘갤럭시 Z 폴드8 울트라·폴드8’ 1·2년형 월 9900원, 3년형 월 1만 4500원이며 ‘갤럭시 Z 플립8’은 1·2년형 월 8900원, 3년형 월 1만 1500원이다.

삼성전자 한국총괄 정호진 부사장은 “이번 ‘New 갤럭시 AI 구독클럽’은 폴더블 기기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혜택과 일상 생활 속 금융 보안, 1020 선호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업그레이드했다”며 “앞으로도 고객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해 차별화된 안심 구독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선보이겠다”고 전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metro

시멘트업계, 에너지 체질개선 속도낸다

에너지 비용 고공행진… 대응 나서
대체연료 활용·폐열발전 비중 확대

전방산업 침체로 고전하고 있는 시멘트 회사들이 고공행진하는 에너지 비용을 줄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그러나 중동정세 불안과 초고환율 등에 따른 에너지 비용 부담이 지속되는데다 전기 값 상승도 이어지는 등 경영여건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26일 각 기업들의 ESG보고서 등에 따르면 한일시멘트는 지난해 총 926만톤의 시멘트 등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에너지 4만3706TJ를 사용했다. 이는 대체연료 1만7334TJ, 유연탄 1만5322TJ, 전력에너지 1만1049TJ를 합한 수치다.

1TJ는 27만778kWh(킬로와트시)와 맞먹는 것으로 700~800가구가 한 달에 쓰는 전력량이다. 그만큼 시멘트 제조 과정에서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쓴다. 한일시멘트는 올해에 4만4351TJ의 에너지소비를 목표하고 있다.

삼표시멘트는 지난해에만 2만7369TJ의 에너지를 사용했다. 삼표의 에너지 사용량은 2023년 3만4446TJ, 2024년 3만1018TJ로 점점 줄었다. 그러나 이는 에너지 사용을 줄이려는 회사의 노력도 있었지만 시멘트 생산량 감소 영향도 컸다.

이런 상황에서 유연탄, 유가, 전기료 등의 고공행진은 에너지 비용 상승과 직결될 수밖에 없다.

시멘트업계 관계자는 “국제 유가·LNG 가격 급등은 시멘트 제조원가에 직접

적 영향을 미치는 전기요금 인상 압박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에너지 가격 상승은 결국 시멘트 가격 인상→건설업계 원가 상승 등의 영향을 줄 것”이라고 분석했다.

전체 에너지 사용량의 30~40%를 차지하는 유연탄 가격도 지난해 t당 평균 약 105달러에서 7월 현재 130달러선까지 올랐다. 2021년 kWh당 평균 105원이었던 산업용 전기료도 154원(2023년)→168원(2024년)→186원(2025년)으로 급등했다.

업계는 유연탄 사용을 줄이고 대체연료에 눈을 돌리고 있다. 한일시멘트는 2023년 35.9% 수준이던 대체연료 비중을 올해 53.1%까지 늘릴 계획이다. 성신양회는 2023년 26.3%였던 대체연료 비중이 2025년 38.5%로 늘었다.

업계는 또 순환연료 사용 확대, 폐열발전’이라고 불리는 에코(eco)발전을 통한 전기 사용 절감, 재생 에너지 활용 등에 더욱 목을 매고 있다. 삼표시멘트의 경우 2023년 당시 전체 에너지 사용량의 8.3% 수준이었던 폐열발전 비중이 2025년에는 11%까지 늘었다.

시멘트협회 관계자는 “재생에너지 비중이 적은 상황에서 글로벌 시멘트업계의 대응 전략을 반면교사로 삼아 국내도 탄소감축에 필요한 순환자원 사용을 늘려 화석연료 대체율(2035년까지 53%)을 높이고 에코발전 활용을 통해 에너지 해외 의존도를 최대한 줄이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bada@

LG 인스타뷰 냉장고, 1분에 1대씩 팔렸다

LG전자 글로벌 판매 530만대 기록
‘인스타뷰’ 기능 호평… 북미 등 인기

‘노크 두 번’으로 냉장고 속을 보여주는 LG전자의 발상이 10년 만에 글로벌 530만 대 판매를 이끌어냈다.

LG전자는 LG 인스타뷰(노크온) 냉장고가 2016년 첫 출시된 후 지난달까지 글로벌 누적 판매량 530만 대를 기록했다고 26일 밝혔다. 총판매고를 시간별로 환산하면 약 1분에 1대꼴로 팔린 셈이다.

특수 코팅유리로 마감된 냉장고 문을 열지 않고도 두 번 노크하면 내부 조명이 켜져 속을 확인할 수 있는 인스타뷰 기능이 글로벌 시장에서 호평을 받았다는 평가다.

홈파티 문화가 발달해 있고 냉장고의



LG 인스타뷰 냉장고.

/LG전자

사용빈도가 높은 북미 시장에서 전체 판매량의 약 30%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판매 비중을 기록했다. 인스타뷰의 편리함과 세련된 디자인이 소비자들의 선택을 이끌었다는 평이다.

유럽은 20%에 육박하는 판매 비중으로 뒤를 이었다. 에너지 효율과 친환경성, 식재료 보관 성능 등을 중요하게 여기는 유럽 소비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

최근에는 아시아와 중남미 등 신흥시장에서도 프리미엄 가전수요 확대와 함께 인스타뷰 냉장고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김재일 LG전자 키친솔루션사업부장은 “LG 인스타뷰 냉장고의 ‘똑똑’ 두드림이 냉장고 사용방식의 변화를 이끌었듯, 인공지능(AI)과 혁신적인 냉장·보관 기술을 바탕으로 고객의 식생활을 더욱 편리하고 즐겁게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혁 수습기자 sh95@

에코프로비엠, ‘K-소듐 얼라이언스’ 출범

솔브레인·애경케미칼 업무협약 체결

에코프로비엠이 솔브레인·애경케미칼과 소듐이온배터리(SIB) 핵심 소재를 공동 개발하고 비중국 공급망 구축에 나선다.

에코프로비엠은 지난 22일 충북 오창 본사에서 솔브레인·애경케미칼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K-소듐 얼라이언스(K-Sodium Alliance)’를 출범했다고 26일 밝혔다. 국내에서 SIB 소재 기업들이 양극재부터 전해액, 음극재까지 핵심

소재 전반을 공동 개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3사는 SIB 양극재와 전해액, 하드카본 음극재의 최적 조합을 개발하고 글로벌 배터리 셀 제조사와 완성차 업체를 대상으로 공동 프로모션을 추진한다. 에코프로비엠은 양극재 개발과 양산 기술 확보, 솔브레인은 전해액·첨가제 기술 개발, 애경케미칼은 하드카본 음극재 개발과 양산 기술 확보를 각각 담당한다.

3사는 개별 소재를 각각 공급하는데 그치지 않고 양극재와 전해액, 음극재를 함께 최적화된 패키지 솔루션’을 개발할 계획이다. 개발품을 상호 제공하고 평가 결과를 공유해 소재 간 성능을 조율한 뒤 이를 글로벌 고객사에 일괄 제안한다. 고객사의 소재 검증과 배터리 개발 기간을 단축해 초기 SIB 시장을 선점한다는 전략이다.

정현수 에코프로비엠 미래기술담당장은 “K-소듐 얼라이언스를 통해 민간 차원의 기술 협력을 본격화하고 국가 차원의 연구개발 지원이 뒷받침된다면 국내 SIB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원민희 기자 wh@

HD현대삼호, 美 항만 크레인 사업 수주

워싱턴 항만터미널 4기 공급 계약

HD현대삼호가 미국 타코마항의 항만 크레인 교체·확충 사업을 수주하며 한·미 조선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 A)’ 지원에 나선다.

HD현대는 26일 HD현대삼호가 미국 워싱턴 항만터미널(WUT)과 항만 크레인 4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은 국내 최대 해운사 HMM의 미국 계열사인 WUT가 노후 크레인을 교체하고 대형 컨테이너선 수용 능력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하는 터미널 현대화 사업의 일환이다.

WUT는 미국 워싱턴주 타코마항에서 총 87기의 안벽 크레인을 운영하고 있다. 이 가운데 47기는 HD현대삼호가 1999년 공급

한 장비다. 안벽 크레인 한대에 접안한 선박에 컨테이너를 싣고 내리는 설비다.

HD현대삼호는 기존 안벽 크레인 2기를 신규 장비로 교체하고, 터미널 야드에서 차량에 컨테이너를 싣고 내리는 야드 크레인 2기를 추가 공급한다.

HD현대삼호는 크레인 설계와 제작, 운송, 설치, 시운전까지 전 과정을 턴키 방식으로 수행해 오는 2028년까지 인도할 예정이다. 크레인 제작에는 포스코가 생산한 철강재가 사용된다.

HD현대삼호 관계자는 “타코마항 항만 크레인 수주는 국내외 프로젝트를 통해 축적한 기술력과 품질 경쟁력을 인정받은 성과”라며 “친환경·고효율 항만 장비 개발을 통해 마스가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유혜은 기자 chae@

소진공, 소상공인 ‘경제적 가치’ 측정

전문가 자문단 발족… 총생산지표 연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전체 기업수의 95.2% 가량을 차지하는 소상공인의 ‘생태적 가치’를 국내총생산(GDP) 처럼 측정해 내놓는다.

여기에는 경제적 가치, 사회적 가치, 문화적 가치가 두루 포함된다.

소진공은 지난 24일 오후 서울 마포드림스퀘어에서 ‘소상공인 경제적 가치 측정 체계 구축 전문가 자문단’을 발족했다고 26일 밝혔다. 자문단에는 한국은행, 국가데이터처,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경제학회, 한국응용경제학회 등 관계기

관 및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가칭 ‘소상공인 총생산지표(S-GDP)’는 소상공인이 국가경제에서 창출하는 생산과 부가 가치를 국민계정체계(System of National Accounts·SNA)에 기반해 체계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연구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 총생산지표(Small Business GDP·S-GDP)’ 구축 연구를 본격 추진한다.

소진공은 이번 연구를 통해 소상공인의 경제적 가치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향후 정책 수립과 평가에 활용 가능한 연구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김승호 기자